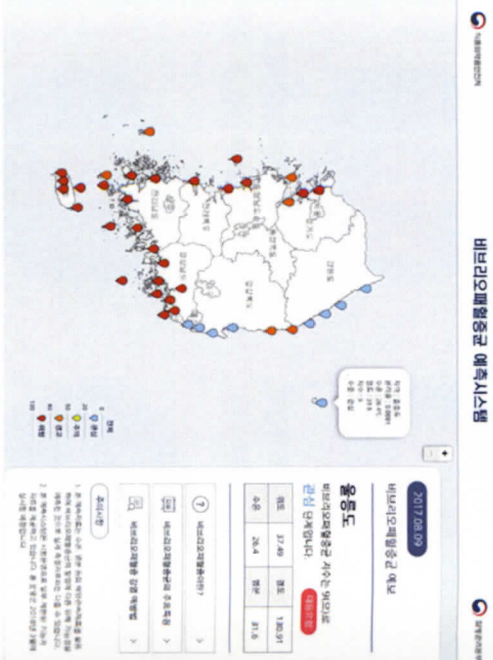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시스템으로 사전 예방한다!



비브리오패혈증군 예측 시스템이란?

'비브리오패혈증군 예측시스템'은 비브리오패혈증군의 생육이 바닷물의 수온, 염분 등 환경 변화에 따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국내 주요 항구, 양식어장 및 해수욕장 주변에서 측정되고 있는 수온, 염분 등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활용하여 각 해인의 비브리오패혈증군 발생가능성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예보하는 시스템입니다.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
- 식품안전정보
- ↓
- 수산물정보
- ↓
- 비브리오패혈증군 예측시스템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시스템으로 사전 예방한다!

비브리오패혈증군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단계	지수	대응요령
관심	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브리오패혈증군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합니다.
주의	2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브리오패혈증군 발생 가능성이 보통 상태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어배류 조리 및 섭취에 주의합니다.
경고	5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브리오패혈증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어배류는 5℃ 이하 저온보관하고 가급적 85℃이상 가열 후 섭취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을 피합니다. 해어배류 조리 및 섭취에 주의합니다.
위험	8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브리오패혈증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물류의 생식에 주의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간절할 환자 등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고위험자는 더욱 주의합니다. 고위험자: 간절할 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악성종양, 폐렴, 등 면역결핍자, 백혈병, 면역결핍환자 해어배류는 5℃ 이하 저온보관하고 가급적 85℃이상 가열 후 섭취합니다. 씻기 등에서 해어배류 취급 및 조리 시 위생적 처리로 비브리오패혈증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씻기 수족관 내 해수온도는 15℃ 이하로 낮춥니다. 해어배류 조리 시 해수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수돗물을 사용하여 깨끗이 세척합니다. 끓여 조리 시 칼, 도마를 아끼게, 내장물 손 씻기는 것과 생선살을 씻었어도 모든 것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해 접어먹지 않거나 부득이 만 경우 장갑을 착용 후 조리합니다.

바닷가 가기 전,

비브리오패혈증군 예측시스템 검색으로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합시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분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정렬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이것만 지켜면 안심!

정렬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비브리오 패혈증이란?

[어원] 비브리오 불니피쿠스(Vibrio vulnificus)라는 세균명의 '비브리오' 미생물에 감염되어 오한,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염증 반응이 나오는 패혈증의 합성어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이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그리고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부위에 침입하면 감염되며,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8~10월에 주로 집중된다.

비브리오 균 3가지

감염 균 : 비브리오균 불니피쿠스균

구분 : 제3군 법정 감염병

증상 : 발열, 오한, 복통, 설사, 피부부종, 하지 통증 등

특징 : 건강한 사람은 가벼운 감염 증상이 나타나고,

질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패혈성 쇼크 증상 유발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균 : 비브리오 콜레라균

구분 : 제1군 법정 감염병

콜레라

증상 : 급성 설사, 탈수

특징 : 한국에서 직접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해외 여행자로부터 유입됨

감염 균 : 장염비브리오 감염증

구분 : 지정 감염병

증상 : 구토, 복부 경련, 설사, 미열, 위장염

특징 : 바닷물 온도 15도 이상에서 증식하며, 20~37도에서는

3~4시간만에 100만배 정도로 빠르게 증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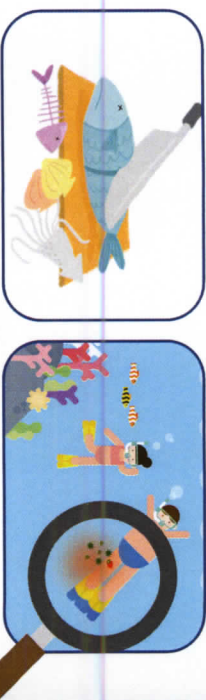
장염비브리오 감염증

주요 발생시기

해수 온도가 18℃ 이상 되는 여름철 7~9월에 주로 발생

← 1~6월 → ← 7~9월 → ← 10~12월 →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경로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에 의해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 난 부위의 접촉으로 체내에 균이 침입하여 감염되나 사람 간 전염은 없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오한, 발열, 설사, 복통이 주요증상으로 나타나며, 어패류 섭취 시와 오염된 바닷물 접촉 시에 따라 잠복기가 다르다.



[피부접촉으로 인한 감염일 때]

- 잠복기는 약 12시간 - 발열 후 36시간이 지나면 하지에 발진, 부종 발생

- 수포, 출혈성 수포가 생기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

[어패류 섭취로 인한 감염일 때]

- 잠복기는 약 2일(3시간~최대 8일)

비브리오 패혈증, 얼마나 위험한가요?

치사율이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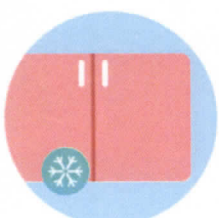
건강한 사람은 감염 정도로 지나가기도 하지만,

질한이 있는 사람(간 질환자/알코올 중독자/당뇨병, 폐결핵 등의 만성질환자/위장관 질환자/면역결핍환자/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 중인 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이 될 경우,

혈류감염을 일으켜 저혈압 피부괴사, 반상 출혈 등의

패혈성 쇼크 증상을 유발하고 치사율이 훨씬 높아진다.

비브리오 패혈증, 얼마나 위험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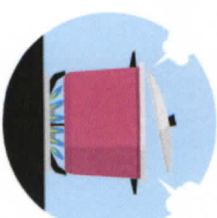
어패류 구입 시 가급적 5℃이하로 저온 보관



화감용은 구분하여 사용하고 칼, 도마 등 열탕소독 건조 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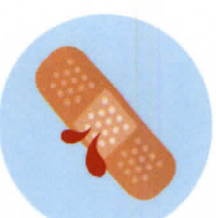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은 후 섭취



85℃ 이상에서 기열처리 하여 섭취



개인이나 위판장 등 공중위생 철저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 금지



간 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

특히 주의하세요!

간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악성종양,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 백혈병, 면역결핍환자 등